

# “장기요양보험료 2배 인상에도 고갈위기… 지출효율화 시급”

최근 4년간 보험료 가파른 인상에 가입자 부담 늘어  
“인상보다 정책기조 전환 등 통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 경총,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장기요양보험이 고갈 위기에 마주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만으론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출 효율화 등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보험료 인상에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

황 △부담수급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간 75.9%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상률이다.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4년 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고율 인상 결과를 살펴보면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2021년 7.65%에 달했다. 2017년 합계 보험료율은 6.52%였다. 최근 4년간 17.3%나 인상된 만큼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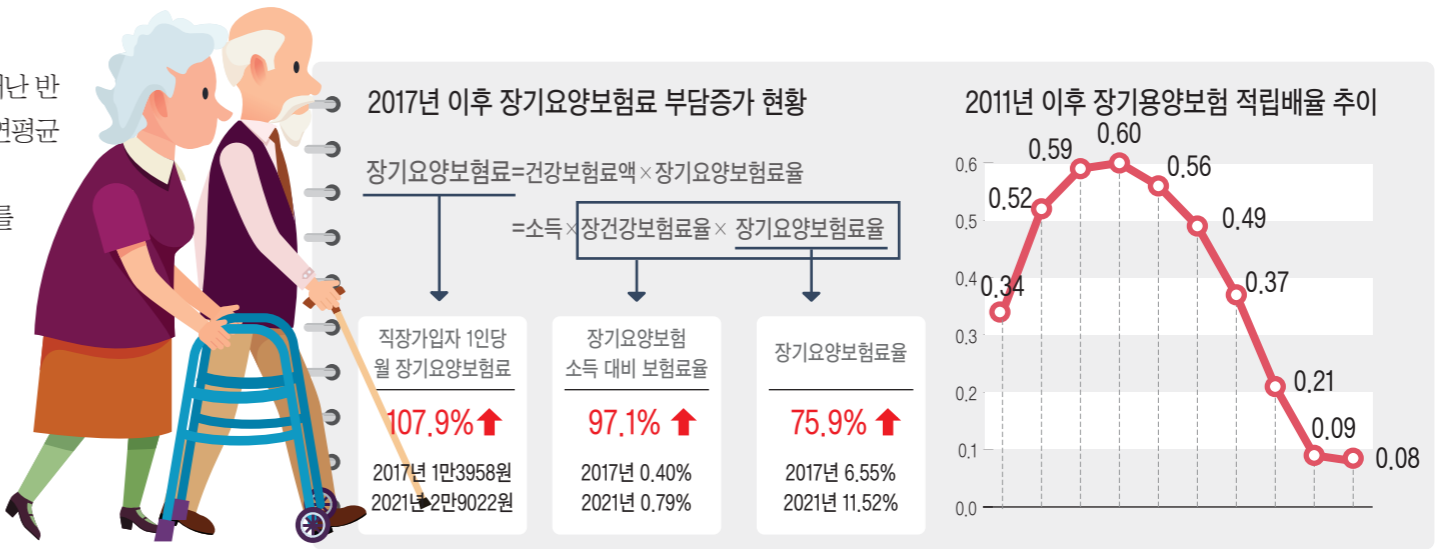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동 기간 연평균 20.0%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대상 확대·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3년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 기간 161.8%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근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부담수급도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담청구로 적발



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담적발률이 91.8%였다. 이들의 부담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부담적발률은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관 중 현지조사기관 비율인 조사실시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3.9%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를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 충

당해 간다면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출부담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2020년 초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어난 보험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내년부터 바로 국고지원금을 예상수입액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출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 골프 관련 특허출원, 코로나19 이후 100건 이상 늘었다

융복합 기술 등 접목 상승세  
전체 특허 중 내국인 비중 85%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골프가 급부상한 가운데 골프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골프 관련 특허 509건이 출원돼 2019년(408건)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스크린 골프, 인공지능서비스 거리 측정기와 같은 융복합 기술, 스윙 교정 도구, 안경, 로봇과 같은 자세교정 기술은 지난해 각각 120건, 174건이 출원돼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시각적 몰입감 향상, 코스 공략, 자세 교정 등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시키려는 다양한 시도, 비거리와 정확도에 대한 골퍼들의 끝없는 관심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간 기술 분야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골프 부속품 및 연습장치와 관련한 출원이 증가 추세다. 슬라이스, 훅 또는 분실 방지용 골프 티와 같이 정확도, 편리성 등을 확보하거나 거리/퍼팅 측정기와 같이 방향, 거리, 경사도 등을 측정하는 골프 부속품 관련 기술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허청이 지난해 골프 관련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골프매장.

남종수 기자

또한 스윙 또는 퍼팅자세 분석/교정 기술, 스크린 골프의 감지/제어 기술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문가 비법을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치에 관한 출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의 85%인 3470건을 출원해 외국인 출원(623건·15%)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내국인 출

원이 많았으나 헤드, 샤프트, 코어, 덤플 등의 구조와 소재에 특징이 있는 출원이 이뤄진 골프채(39%)와 골프공(33%)은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거나 자세교정 기술이 부가된 출원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중심으로 한 내국인이 각각 96%, 94%를 차지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규 기자

##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URC102’ 제조법 유럽 특허 등록

고요산혈증 원인 통풍 질환에 유효...3월 국내 임상 2b상 완료

JW중외제약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의 제조 방법이 유럽에서 원천기술로 공인받았다.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신약후보물질 URC102의 제조 기술에 대해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URC102의 주성분이 되는 화합물 제조 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중간

체에 관한 것이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는 요산수송체(URAT1)를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이다.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 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시장에 대한 URC102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기술 수출했다. 현재 JW중외

제약은 URC102에 대한 국내 후기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3월 URC102의 국내 임상 2b상을 완료했다. 한국인 통풍 환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b상에서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향후 주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서류 절차를 거쳐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URC102 제조 방법에 대한 글로벌 특허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URC102를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유효성을 겸비한 글로벌 통풍 신약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URC102 제조 방법과 관련해 지난해 호주, 올해 4월 남아공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 개국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양준규 기자



LG유플러스가 일본 통신사 'KDDI'와 손잡고 온라인 K-POP 콘서트를 공동 제작·송출한다.

## LG유플러스, 온라인 K-POP 콘서트

일본 통신사 'KDDI'와 맞손... 한일 첫 협업 비대면 공연

K-POP의 인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해외 통신사와 온라인 콘서트를 공동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일본 통신사 'KDDI'와 손잡고 온라인 K-POP 콘서트를 공동 제작·송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일 이동통신사가 협업하는 비대면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17일 아이돌그룹 '더보이즈'와 '에이티즈'가 출연하는 온라인 콘서트 '2021 THE BOYZ & ATEEZ ONLINE LIVE: "2WILIGHT ZONE"'을 개최한다. 실시간 공연은 'U+아이돌Live'에서 단독 중계되며 고 객들은 'U+아이돌Live' 앱과 '인터파크티켓', '마이뮤직테이스트'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2WILIGHT ZONE'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K-POP 무대의 비대면 체험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K-POP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이동통신사와 공동 기획으로 국내외 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고객들을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약 90분간 최소 10여 곡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K-POP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더보이즈'와 '에이티즈'의 신곡 무대를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이날 콘서트는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공연은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티켓은 실시간 관람권이 2만7500원(VAT포함)이며 각 아이돌 그룹의 굿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구성에 따라 4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구매 티켓으로는 최대 2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지원 단말은 모바일, PC, TV 등이다. Live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는 U+아이돌 Live 웹사이트에서, IPTV에서는 U+tv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양준규 기자